

조선봉건왕조시기 이상사회를 지향한 소설의 일반적특징

김 명

행복한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지향과
념원, 갈망은 그 어느 시대에도 있었다.

이상사회를 그려보인 소설작품들은 일
정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창작되며 일
련의 특성과 합법칙성을 가진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이상사회에 대한 지
향과 그 면모는 많은 경우 소설작품들에서
펼쳐지고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이상사회를 지향한
소설작품들의 일반적특징은 무엇보다먼저
랑만주의적수법을 리용하여 창작되었다는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중세봉건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소설의 작가들은 그것을 환상적
인 수법으로 그려보이지 않으면 안되었습
니다.》

이상사회에 대한 요구와 지향은 당시의
봉건사회현실에서는 용납될수 없고 실현될
수도 없는것이였다. 그러므로 이상사회를
구상하고 문학작품에 그리는 문인들은 그
것을 사실주의적으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주관적의도에 의하여 공상적으로 펼쳐놓게
되었던것이다.

이상사회를 념원한 소설작품들이 많은
경우 꿈형식의 소설형식을 리용하고있는것
이 그것을 잘 말하여준다.

꿈형식은 문학작품들에서 언제나 그 시
대 인간들의 지향과 요구, 념원을 적극적
으로 표현하는 형식의 하나로 널리 리용되
여왔다. 그것은 꿈형식이 당시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작가들의 리상과 포
부를 자유분방하게 토로하고 펼쳐보이는데
서 유리하고 적중한 형식이였기때문이다.

김시습의 《룡궁의 상량찬치》나 《남염

부주이야기》, 심의의 《기몽》, 17세기 소
설 《금산사몽유록》과 같은 작품들은 모두
꿈형식을 리용하여 작가의 포부와 이상사
회에 대한 지향을 그려보여준 작품들이다.

이상사회를 그려보인 문학작품들은 실
사 사실주의적인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리
상사회를 그리는 부분에서는 많은 경우
공상적화폭으로 펼쳐지는것을 피할수 없
었다.

허균의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곡산
모의 모해로 집을 탈가하는데까지는 사실
주의적으로 그려졌다면 그가 농민봉기군
두령이 되어 봉건정부를 반대하여 싸우는
부분과 《률도국》건설부분은 랑만주의적으
로 형상되었으며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
에서의 무인도리상사회는 사실주의적필치
로 씌여졌으나 랑만주의적화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랑만주의적수법의 리용은 이상사회를
그린 문학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특징으로
서 그것은 이상사회가 착취사회현실에서
는 실현될수 없는것으로써 봉건통치층의
리해관계에 완전히 배치된다는 사정과 관
련된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이상사회를 지향한 소
설작품들의 일반적특징은 다음으로 현실비
관적인 경향을 가지고있는것이다.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감정을
떠나서는 이상사회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수 없다. 이상사회는 작가의 사회정치적리
상의 반영으로서 여기에는 당대 불합리한
사회현실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인 태도와
불만이 깔려있다.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형상적재현이 아니라 부정적인 태도와 불
만을 이상사회의 면모를 통해 밝히고있는
것으로 하여 일반 현실비관주제의 작품
들보다 한결음 더 전진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홍길동전》의 기본주제는 적서차별을 비롯한 봉건의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주인공 홍길동이 합천 해인사를 공격하고 함경감사를 징벌하는 내용과 당시 임금에게까지 자기의 요구를 당당하게 들이대는 이야기들은 그가 현실에 대한 반항아로서의 특질을 전형적으로 체현하고있는 인물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현실의 불합리를 절감하고 그에 대한 항거와 함께 나아가서 새로운 왕국인 《률도국》을 세우는것으로 하여 작품의 현실비판성은 일반 현실비판주제의 작품들보다 더욱 강렬하다. 이것은 이상사회를 그려보인 다른 소설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실례로 김시습의 《남염부주이야기》에서 주인공 박생은 《늘상 마음속으로 불평을 품고있》었는데 꿈에 남염부주라는 섬에 가서 그곳의 통치자인 염왕과 유교와 불교, 귀신과 같은 종교문제로부터 현실사회의 왕의 기원과 력대 왕조의 흥망성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회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이때 염왕은 《나라를 다스리는자는 폭력으로써 백성들을 억압해서는 안되오. 백성들이 비록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서 따르는것 같으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반항심을 품고있는것이니 이것이 날로 쌓이고 달로 쌓이면 필경에는 터질것이오. 그러므로 덕이 있는자는 권력으로써 직위를 탐내지 않는것이요.…»》(《김시습작품집》〈꿈에 본 남염부주〉)라고 말한다. 이 말은 세조가 폭력으로써 나아린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고 백성들을 가혹하게 억압착취하는 비도덕적이며 반인민적인 처사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이상사회를 지향한 소설작품들의 일반적특징은 다음으로 심각한 사회정치적사변들이 벌어지던 시기를 전후하거나 봉건사회의 각종 불합리가 사

회생활의 첨예한 논점으로 되던 시기에 창작되었다는것이다.

수양대군에 의한 왕위찬탈을 계기로 벼슬을 버리고 정계를 하직한 《생록신》에 속하였던 김시습과 남효온 등은 자기들의 작품에서 포악한 군주가 없는 이상국가를 꿈꾸었고 16세기에 격화된 당쟁의 폐해를 절감한 립제와 권필을 비롯한 량심적인 문인들은 당파가 없는 사회를 념원하였다.

또한 허균은 봉건의 적서차별을 비판하고 적서의 차별이 없는 이상사회를 펼쳐보인 국문소설 《홍길동전》을 창작하였다. 허균이 《홍길동전》을 창작한데는 그의 스승인 손곡 리달이 서자인것으로하여 서자의 설움을 일정하게 목격했고 또 허균자신도 아버지 허엽의 둘째부인(당시 레조판서로 있던 김광철의 딸이었는데 첩은 아니였다.)의 소생으로서 서자는 아니였지만 이복형제들속에서 생활하면서 서자들의 불우한 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보아진다.

적서차별문제는 당시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었을뿐만아니라 궁중에서 왕위계승과 관련된 정치적문제로까지 되었다.

허균이 생존하여 벼슬을 하던 시기는 조선봉건왕조의 14대왕 선조와 15대왕 광해군이 집권하던 시기였다. 광해군은 서자계렬의 둘째아들로 겨우 왕위에 오른 임금이었다.

임진조국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선조의 세자책봉문제가 자주 제기되었지만 선조는 정비인 의인왕후 박씨소생의 왕자가 없는것으로 하여 세자책봉을 계속 미루어 오다가 임진조국전쟁이 시작되자 의주로 피난가면서 하는수없이 서자였던 광해군을 다급히 세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그가 서자인것을 마음 한구석에 새기고있던 선조는 의인왕후가 죽고 1602년에 인목왕후가 계비가 되면서 아들 영창대군을 낳자 점차 그에게 세자의 자리

를 넘겨주려고 하였다. 선조가 좌우대신들에게 영창대군의 앞날을 부탁한다고 하면서 영창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려는 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병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광해군은 그대로 왕위에 올라앉게 되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것이 아니라 바로 세자책봉문제를 둘러싸고 광해군을 세자로 내세우려는 세력과 영창대군을 내세우려는 세력사이에 마찰이 일어나 정계가 물의를 일으켰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서자인것으로 하여 영창대군과 인목대비 등 왕위를 위협하는 세력과 그를 뒷받침하는 소북, 서인, 남인에 대하여 대대적인 제거행위가 진행됨으로써 나중에는 인조의 광해군축출이라는 사변에까지 이어지게 된것이다.

당시 정계에서 벌어진 추악한 싸움의 밑바탕에는 광해군이 서자라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허균은 적서의 문제를 나라의 정치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보았으며 이것이 자기의 소설 《홍길동전》에서 현실에 반항하는 서자출신의 주인공을 등장시키게 하였고 나중에는 적서의 차별이 없는 리상국가까지 설계하게 한것이라고 볼수도 있다.

18세기의 이름난 실학자 연암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도 봉건사회가 심각한 정치적 및 경제적위기를 겪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있다.

18세기 나라의 경제질서는 심히 혼란되고 백성들의 생활은 더없이 멸락되었다. 특히 이 시기는 신분적차별문제와 적서차별문제가 더욱 전면에 제기되었고 멸락된 경제형편을 바로잡기 위한 실학과를 비롯한 진보적학자, 문인들의 논의가 수많은 제기되던 시기였다.

통치배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및 경제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얼허통》정책과 《노비변정》 등 일련의 회유책을 실시

하였지만 여전히 지배세력과 인민대중은 첨예하게 대립되어있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연암 박지원은 《허생전》에서 신분적차별이 없이 누구나 로동에 참가하고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새로운 무인도리상사회를 구상한 것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문학작품에 그려진 리상사회, 리상국가가 많은 경우 《리상적인》 봉건왕국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사정은 중요하게 창작가들의 계급적 및 세계관적제한성과 관련된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소설작품들에 그려진 리상사회는 《어진 임금》, 《어진 판리》에 의하여 정사가 실현되며 착취와 압박이 없이 누구나 다 일하고 누구나 잘사는 《평등사회》이다.

여기에는 왕이나 양반계급의 착취가 없고 누구나 다 발가는 법과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면 사양하여 먼저 먹게 하는 레절만이 있을뿐이다. 이것은 박지원을 비롯한 실학자들의 평등과 인도주의에 대한 사상이 일정하게 반영된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전시기 소설들에 그려진 리상사회가 봉건왕국이라는것을 볼 때 무인도리상사회는 이전시기 리상사회에 비하여 행복한 생활에 대한 지향이 보다 강렬해지고 봉건사회의 기초가 세차게 흔들리던 18세기 후반기의 시대적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한것이라고 볼수 있는것이다.

착취와 억압이 극심하고 사대주의로 하여 부패한 18세기말의 봉건사회현실에 왕도 없고 누구나 다 일하며 풍족한 생활을 하는 사회를 대치시킨것은 작가의 진보적 사상을 예술적으로 재현한것이다.

이러한 리상사회는 사회정치적기초나 물질적기초에서 아직 료관적이고 공상적이기는 하지만 가혹한 봉건적압박이 없는 행복한 생활을 갈망하는 근로하는 인민들의 지향을 일정하게 반영하였다는데 진보성과

의의가 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소설문학에서 많은 작가들이 착취와 압박이 없는 이상사회를 념원하고 펼쳐보였으나 그것은 정확한 실현방도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 새 사회를 세울만 한 실제적력량이 마련되지 못하였던것으로 하여 극히 추상적이고 공상적인데 불과하였다.

이상사회는 당시 재능과 학식은 가지고 있으나 정계와 현실에 불만을 품고 전원에 묻혀 이른바 깨끗한 덕을 숭상하며 살아온 사람들, 정계에서 밀려난 몰락된 량반들을 비롯한 지식인들에 의하여 설계되고 문학

작품에 그려지였다. 이러한 부류의 지식인들은 하층생활에 가까이 접근하여 인민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면서 인민들의 립장에 일정하게 서있기는 하였지만 어디까지나 량반지배계급출신들이므로 하여 그들이 설계한 이상사회는 계급적제한성을 면할수 없었다.

그러나 이상사회를 그려보인 소설작품들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요구를 일정하게 반영한것으로서 중세문학사에서 의의를 가지는 작품들중의 하나이다.